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건강검진차에서 자궁암을 발견 ·

언제 더웠냐 싶게 꽤나 쌀렁한 바람이 부는 날이다. 추수를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간다. 수건을 쓴 어느 아주머니가 허리를 펴고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주고 받았을까. 커다란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다가 서서히 사라져간다.

자궁암



병을 고쳤습니다”

치료에 성공한 정부영씨

기자는, 건강검진차를 찾아, 자궁암검사를 받았다가 병을 조기발견하고 두달에 걸친 치료 끝에 건강을 되찾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정부영씨(경기도 수원시 세곡2동 537-19)를 만나러 갔다.

자신이 당한 일을, 슬퍼하기 보다는 좋은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그녀를 만나면서, 기자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울수 있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분

- 건강은 어떠세요?

『아직은 조리를 해야하는 단계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쾌활하게 웃는 정부영씨의 첫인상은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동 검진차가 온다기에 구경나갔다가...

- 저희 협회에서 검사를 받게된 동기는?

『올해 6월이었죠. 동사무소 앞에서 검진차가 와서 건강검사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삼아 나갔어요. 기웃기웃거리다가, 여자라 그런지 “자궁암검사”를 한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정씨가 처음 자궁암검사를 받게된 경위를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김숙일씨(경기지부 임상병리계장)는 『당시, 저희 협회에서는 수원시 영세민에 대한 무료 검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비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받고 헤드렸었는데 우리 정선생님은 그때 검사를 받으셨어요.』라고 덧붙여 설명한다.

무슨 병에 걸렸으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다

- 검사를 받으시기 전에 느끼시던 특별한 자각증상은 있으셨습니까?

『네, 특별히 아프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부부관계 후 피가 나고, 냉이 좀



◀ 개인이 별 불편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자
궁암 자가 채취기를 사
용하는 것이 마음에 들
었다고 말하는 정부영
씨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습디다. 제가 자궁암 같은 것에 걸려 있으리라는 상상은 조금도 하지 못했죠.』라면서 다시 한번 웃는다. 그러면서 그녀는 견첩 검진차를 만난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편리한 검사방법이 좋았다

『다른 것보다도 개인이 별 불편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채취기를 사용한 것이 마음에 들더군요.』 정씨는 자신이 검사를 받게 된 동기 중에는 “편리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고 밝힌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검사결과

『검사를 받은 후 잊고 있었어요. 며칠지난 후 결과서를 받아들었을 때 처음엔 기가 막혔죠. 그리고 솔직히 견첩의 검사결과를 믿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은 이유가 더 컸겠지만요.』

그녀는 결과서를 받던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 놓았다.

정기적 검사만이 병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

한편 김숙일씨는, 『자궁암은 보통 초기에는 별 자각증상이 없다가 병이 심각해지는 경우는 많은데, 병이 심각해지기까지는 사람에 따라 5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주로 40代~50代 사이에 많이 나타나죠. 정부영씨의 경우는 그래도 빨리 발견된 셈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자궁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가 되지만, 병이 깊어져 버리면 설사 치료를 한다고 해도 재발이 쉽게 되며 다른 곳으로 퍼

지게 되면 치료가 어렵게 된다고 말하면서 결혼한 사람이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까지 통원하면서 정밀검사를...

— 그후 어떻게 치료를 하셨는지요 ?

『처음엔 작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제검사를 받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견협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 봤더니 역시 자궁암 1기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8월5일 서울 원자력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정부영씨는 인천부터 서울까지 통원하면서 조직검사, 방광검사, 피검사 등 여러가지 정밀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적극적 사고도 치료에 중요한 역할

『결과는 견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원자력병원에 입원을 했고, 8월24일 수술을 받았읍니다.』 정부영씨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처음엔 암담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간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싶어 마음을 고쳐먹었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자”, “일찍 발견되었으니,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좀 마음이 놓이더군요.』라며 여전히 시원스런 웃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그런 적극적 사고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까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자궁암은 병이 깊어
쳐버리면 치료를 한다
해도 재발되기 쉽고 다
른 곳으로 퍼지면 치
료가 어렵기까지 하다
고 설명하는 김숙일씨



장기간의 치료 속에도 잃지 않았던 웃음

『나팔관 하나를 드러내는 수술을 받고 40여일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읍니다.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편 좋은 경험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라면서, 정씨는 지금도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끔 연락을 한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웬지 기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깨달았읍니다

『6개월에 한번씩 재검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이 많읍니다. 자궁암 뿐만이 아니라, 어느 질병이든 조기에 발견되어야만 쉽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느낌입니다. 주위사람들에게 많이 권유하고 있어요. 건협이 홍보요원이죠. 하하……』라는 정부영씨는,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주위에 얘기하면서 건협에서의 정기건강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검사혜택을...

『건협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차가 수시로 다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 몸속에 병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라며 그녀는



▶어느 질병이든 조기에 발견되어야만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검진차를 통한 검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장상철 사업과장

견협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는다.

병으로 죽는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정씨는 또, 『오래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보람된 일을 하다가 죽기도 어려운데 병을 몸속에 키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라면서, 내용있는 삶을 위하여라도 질병의 조기발견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한다.

사업을 하는 이길호씨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녀와, 여자 못지 않게 깔끔하게 파일을 깎아내어 오는 장남의 차분한 얼굴을 보면서 그녀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편 장상철 견협경기지부 사업과장은, 『정부영씨만큼 자신의 삶에 적극적인 사람은 별로 만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정씨의 말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다.

자연스럽게 불어오는 가을바람 속을 걸으면서, 정부영씨처럼 적극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자세를 누구나 배워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높게 느껴졌다. (이은희 글)